

文, 대의원 투표·국민여론서 앞서고 차, 권리당원·당원 여론 조사서 1위

■ 새정치 전대 후보별 표분석 최고위원 1위 주승용 후보

대의원·권리당원 등 고른 지지

새정치민주연합 2·8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 결과, 선거인단 비중이 가장 컸던 대의원 투표에서 당락이 갈렸다.

문재인 후보가 박지원 후보를 총 득표율에서 3.52%포인트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지만, 대의원 투표와 국민여론조사에서만 박 후보를 앞섰을 뿐 권리당원과 당원 여론조사에서는 모두 박 후보에게 밀렸다.

결과적으로 문 대표는 전체 선거인단 비중

에서 45%를 차지하는 대의원 투표에서 45.05%의 득표율을 얻으면서 42.66%의 득표율에 그친 박 후보를 2.39%포인트 차이로 따돌린 것이 당선으로 이어졌다.

이번 당 대표 경선에서 선거인단 비중은 대의원 투표 45%, 권리당원 투표 30%, 국민 및 당원 여론조사 각 25%씩이었다.

개표 결과를 세부적으로 분석해보면 일반국민(문재인 58.05%, 박지원 29.45%)에서 문 후보가 압승한 반면, 권리당원(문재인 39.98%, 박지원 45.76%)에서는 박 후보의 우위가 뚜렷했다.

일반당원에서도 박 후보가 1.12%포인트의 근소한 차이로 앞서 당선은 박 후보 편이라는 전망이 적중했다.

막판 혼전 속에서 71%대의 높은 투표 참여율을 보인 대의원들의 경우 박 후보(42.66%)가 아닌 문 후보(45.05%)의 손을 들어줬으나, 통상 대의원 투표에선 계파별 출세우기 현상이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발적 당심은 박 후보에게 좀더 우호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문 후보가 당권을 거머쥘 수 있었던 원동력은 친노의 결집과 압도적 국민 지지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대선에서 48%의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문 후보의 인지도가 여전히 강고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더불어 당내외에서 고루 세력 기반을 갖춘 친노의 표심과 조직력이 문 후보에게로 결집된 것도 큰 힘이 됐다.

반면, 문 후보가 당 대표로 당선은 됐지만,

박 후보가 당의 주요 지지기반인 권리당원과 일반 당원들의 지지에서 앞섰다는 점에서 박 후보에게는 고무적이라는 평가다. 비록 당 대표 선거에서는 패했지만, 당원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호남의 맹주 역할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이날 최고위원으로 당선된 주승용 의원은 선거인단 비중이 가장 높았던 대의원·권리당원들의 폭넓은 지지를 얻으면서 1위로 당선되는 영광을 안았다.

주 의원은 대의원 투표에서 15.98%의 득표율을 얻어 최고위원에서 탈락한 박우섭(16.24%) 후보에 이어 가장 많은 지지를 얻었다.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18.88%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다.

권리당원 득표율에서 2위를 차지한 정정래 후보와는 4%포인트 가량을 앞섰다.

국민여론조사에서는 14.9%로, 3위를 차지했고, 당원여론조사에서는 11.9%로 4위를 차지하는 등 주 의원은 각각의 선거인단에서 고루 높은 지지를 얻었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이완구 후보자 청문회 예상 쟁점과 입장

의혹	쟁점	해명
언론보도 외압, 인사개입	- 언론사 전화에 보도 통제 - 언론사 고위층 통해 인사개입	- 전혀 사실 아닌 내용으로, 실명 거론된 문에 사과 - 가진 표현은 부역의 소치, 대오각성 마음으로 사과
본인 병역	- 1급 병역 판정 이후 재검 신청해 보충역 판정받아	- 병역회 통해 입정 받길 것
차남 병역	- 차남, 4급 판정 이후 무릎 수술 받고 병역 면제, 특히 수술은 의사 소견에 따른 게 아니라 본인 요청으로 실시	- 병역회 통해 입정 받길 것
재산신고 누락	- 타임캡슐 미비 시세차익 재산 신고 누락 의혹	- 전년도 변동내역 신고하는 제도에 따라 직접입회 신고
논문표절	- 박사학위 논문과 석사학위 논문 내용이 기존 책 등과 거의 일치하지만 별도 인용표시 등이 사용	- 20년 지난 논문을 지금의 일각한 것대로 보면 지적이 맞을 수 있고, 무리하거나 소홀한 부분 있을 수 있음. 오류·착오 다시 살펴보고 해명하겠음



병역·재산 의혹에 ‘언론외압’까지 이완구 청문회 ‘험로’ 예고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다.

후보 지명 직전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 위대한 대야(對野) 관계를 바탕으로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지만, 본인·차남의 병역 기피 의혹과 재산 형성과정에서의 부당산 투기 의혹, 논문 표절 의혹에 이어 언론외압 의혹까지 번지면서 궁지에 몰리고 있다.

이 후보자에게 결정타를 날린 건 언론외압 의혹이다. 국무총리 지명 이후 언론사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에 대한 의혹보도를 막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기자들과 오찬 자리에서 말하면서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KBS가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 의원을로부터 받아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야 우선 저 패널부터 막아 인마, 빨리, 시간없어” 그랬더니 지금 메모 즉시 넣었다고 그래 가지고 빼고 이더러라고, 내가 보니까 빼더라고”라고 말했다. 보도 내용뿐 아니라 언론사 인사에 개입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발언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후보자는 “다소 거칠고 정제되지 못한 표현을 사용한 것은 저의 부덕의 소치”라고 즉각 사과했다.

그러나 이 후보자의 대언론관을 고스란히 드러낸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청문회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을 예고했다.

이 같은 의혹들과 관련, 새누리당은 이 후보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예정대로 10~11일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정치연합은 이 후보자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새정치연합 총리인사청문위원 일동은 이날 성명에서 “이 후보자는 하루가 멀다고 터져 나오는 각종 의혹에 대해 국민과 국회에 소상히 밝히고 대국민 사과해야 한다”며 “그동안 벌어진 언론통제의 진상을 낱알이 밝히고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jkipark@kwangju.co.kr



확메운 새정치 전당대회장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제1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가 열린 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대의원들이 투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비율 50% 이상·권리당원 50% 이하로

새정치 총선 공천 룰 확정...전략공천 비율도 현행 30%서 20%로 축소

새정치민주연합은 8일 서울 방이동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을 위한 경선 규정과 관련, 국민 50% 이상과 권리당원 50% 이하의 비율로 합산해 선출토록 당헌·당규에 규정했다.

후보자 공천경쟁에서 국민의 의견 반영 비율을 높인다는 원칙적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후보자 심사기준 및 경선 방법을

선거일 1년 전에 조기 확정토록 했고 공천관리 위원회 위원도 기존 15명 이하에서 20명 내외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총선 전략공천 비율을 현행 30%에서 20%로 대폭 축소하고 비례대표 후보순위 결정도 당 대표의 추천이 아닌 중앙위원회 투표로 확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도 확정했다. 전략공천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략공천위원회도 신설

해 운영하기로 했다.

비례대표 또한 당 대표의 후보자 추천 규모를 줄였고 나아가 후보 순위 결정도 당 대표의 추천이 아닌 중앙위원회 투표로 결정하기로 해 당 대표의 권한이 축소됐다. ‘비례대표 지역선발제’를 도입해 당선 안정권 내 10% 이상 의무적으로 포함시켜 ‘지역 안배’도 도모했다. 청년 후보의 경우 경선 가산점 범위를 확대했다.

당헌당규분과위는 또 당의 분권화를 위해 ‘3권 분립’과 ‘지방분권’이라는 정당 운영의 원

리를 명문화하고 중앙위원회를 분기별로 1회 소집토록 해 중앙위의 역할을 높였다. 나아가 기존 윤리위원회를 ‘윤리심판원’으로 개칭해 당의 사법기구로서의 위상을 부여하면서 중앙위원회의 직할로 했다.

최재성 전대준비위원회 당헌당규분과위원장은 “당헌·당규 개정은 ▲당의 분권화 및 당내 민주주의 실현, 예측가능성과 객관성 ▲약자에 대한 배려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천개혁 ▲당 윤리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정비 및 윤리규범 제정 ▲현실에 맞게 당 조직 및 기구 정비 ▲당 재정 효율화 및 투명성 강화 등 5가지 관점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박지경기자jkipark@kwangju.co.kr

野, 박상욱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이콧’

오는 11일 열릴 예정이던 박상욱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무산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검사 출신인 박 후보자의 ‘박총철군 고문 치사사건’ 수사 참여 경력을 문제 삼아 후보 사퇴를 요구하면서 청문회 절차를 사실상 ‘보이콧’했기 때문이다.

박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은 지난 6일 국회 브리핑에서 “어제 특위 전체회의가 결렬되면서 참고인 출석 날짜가 문제돼 11일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상 위원회가 증인이나 참고인을 부르려면 출석요구일 5일 전에는 출석요구서가 송달돼야 하는 만큼 현실적으로 11일 청문회는 어려워졌다.

박지경기자jkipark@kwangju.co.kr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백명숙 이사, 유경선 원장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시까지...

중매 잘한다~ 성사 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출업 (광주 서석초등학교 졸업,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 한국도로공사 다년재직)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업체 (전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결혼정보서비스업체)
전남대학교 동문 결혼정보업체

초혼	추천 회원	재혼
남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7-45세 편사, 검사, 변리사, 회계사 28-47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삼성, 현대, LG 직원 28-47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교사, 교수 28-49세	여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26-3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42세 스타어디스, 영양사 26-42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복 27-36세	남 의사, 변호사 32-65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 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 대기업 간부 36-59세 회사원, 자영업 33-67세 '무출산 여성' 희망 31-58세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하나은행 B/D 6층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방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미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편을 깨끗이 물 청소하고 로리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품무성,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기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를 꼭 확인하세요...

ENG. 이앤지 방수, 바닥재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방수주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